

# '95 중점 투자방향과 관내 항별 투자계획

동해어항사무소

## 17개항에 243억 4,000만원

- 계속투자 8, 정비확장 3, 보수보강 6개항 -

閔 丙 勳

〈東海漁港事務所長〉

동해어항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항은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소재 대진항으로 부터 부산의 다대포항까지 제1종어항 23개소와 울릉군 소재 3종어항 2개소를 합하여 총 25개소 어항의 건설과 관리를 맡아하고 있다.

동해어항사무소 관내 어항의 중점 투자방향은 '92년 이전에 투자한 항중 현재 미완공인 수산, 현포, 안목, 축산, 사동항 등은 '9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93년부터 투자한 오산, 구산항은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95년도 어항건설사업비는 243억4천만원으로 '94년도 122억8천만원에 비하여 거의 두배

로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5억4천만원과 농특회계 168억원으로 되어있다. 이 예산으로 계속투자항 8개소에 192억원, 정비확장항 3개소에 23억원과 보수보강항 6개소에 28억4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어항건설사업비의 대폭증액에 따라 예년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소요공기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을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에 착수하였다. 특히 어항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설계도면 작성을 시작하여 3월초까지 전항에 대

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설계서 작성을 위하여 설계전산화를 계속 추진하여온 바 어항시설공사에 적합한 전산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 어항사무소에 배포하여 어항설계를 전산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기 구축된 D.B를 설계에 적극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울릉도 현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용역사에 의뢰하여 설계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책임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포항은 어항건설사상 처음으로 용역사업 수행능력 사전평가를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기존 기본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실시시설계획의 과업을 지난 1월 26일부터 수행중에 있다.

또한 어항건설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93부터 어항시설공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어항시설공사 종합대책은 “부실공사방지대책”, “어항시설피해최소화대책”, “어항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 “어항시설물안전관리대책”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어항시설 공사에 있어 설계 및 조사단계에서 부터 시공, 감독(감리)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태풍, 해일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해방지 활동계획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어항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사 및 공사종사자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항별 시설계획을 보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소재한 수산항과 강릉에 소재한 안목항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작장을 확충하고 방파제를 시설할 계획으로 시설이 완공될 경우 수산항은 관광객의 유치로, 안목항은 강릉 도시민에게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휴식공간으로도 큰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에 소재한 오산항은 기본계획과 '94시설물 안전점검시 방파제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항내 정온을 위해 방파제를 보강하고 제작장과 방파제를 연장 시설할 계획이며, 사동항은 남방파제

와 호안일부를 시설할 계획으로 '96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구산항은 작년에 이어 남방파제 축조를 계속하고 영덕에 소재한 대진항은 기존시설의 노후로 인한 취약부분을 설계에 반영, 보강할 계획이며, 축산항은 방파제 시설을 계속하고 조선소와 동방파제 사이에 계획된 물양장 후면의 일부구간을 매립하여 제작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울릉도에 소재한 현포항은 설계과추정, 구조물의 안전도 진단, 시설물 배치계획 및 실시시설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저동항은 북방파제의 잔여구간과 남방파제를 강풍과 태풍등의 내습에 대비 보강하여 월파로 인한 피해와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항별 투자예산(동해)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명	사업비	구분	항명	사업비
계	17개항	24,340	정비확장	3개항	2,300
계속투자	8개항	19,200	읍천	대진(경)	500
	수산	4,000		저동	1,300
	안목	4,000		6개항	2,800
	현포	4,000	보수보강	장호	600
	축산	2,000		정자	130
	대변	2,000		방어진	1,070
	사동	800		다대포	738
	오산	1,800		금진	272
	구산	600		덕산	30

경남 울산에 소재한 방어진 항은 방파제의 보강을 계속하고 부산에 위치한 대변항은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술용역단에 의뢰하여 대책을 강구, 물양장 시설과 동방파제 축조를 할 계획이다.

다대포항은 물양장 축조를

금년도에 끝내고 주민이 건의한 제2돌제를 보강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천진, 안목, 오산 및 구산항은 표사의 이동에 따른 모래 퇴적현상이 초래되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수산청에 의뢰중인 용역 결과를 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

중인 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도 정확한 설계, 철저한 감독과 검사, 그리고 고도의 품질관리로 어항공사의 질적향상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㉔

## 서해어항사무소

# 소흑산도등 12개항에 319억원

- 계속투자 9, 보수보강 3개항 -

朴正台

〈西海漁港事務所長〉

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수용과 어획물 양육의 신속처리 및 편리등을 도모하는 수산업 지원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생필품 보급 및 농수산물 운송기지, 지역관광 중심지 등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여 지역발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항건설은 안정성, 경제성등 필히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어항이용의 편의시설, 레크레이션을 겸한 여가휴양지로서의 개발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조사 반영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되도록 건설하고 경제적이고 쓸모있는 아름다운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정부에서 국민의 성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어항분야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무소 관내 1·3종 어항에 94년도의 18,519백만원 투자에 이어 95년도에는 58%가 증액된 31,900백만원을 소흑산도항등 계속투자대상 8개항에 28,

800백만원, 위도항등 보수보강대상 3개항에 3,100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기히 추진중인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의 완성을 촉진하고 주민편익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각 항별 투자 계획은 별표와 같다.

그러나 어항건설은 대부분 현장이 도서벽지에 위치하여 그 주요 공종이 해상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적인 많은 제약요건과 작업량의 한계성, 많은 예산의 소요등으로 단기간에 완성하지 못하는 어